

토토의 집안일 모험

작은 손길로 만드는 따뜻한 집





토토는 작은 갈색 곰이에요. 반짝이는 눈 속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집안일에 도전하는 날이에요.



먼저, 청소하기! 토토가 작은 청소 천을 들어 올리자, 천이 살짝 웃으며 '안녕!' 하고 인사했어요.



바람카펫 위에서 토토가 살살 청소를 시작했어요. 비들비들, 바람이 토토의 귀를 간질였어요. 후우, 후우, 작은 숨이 가만히 내려앉아요.



집안일을 함께하니, 청소 천이 속삭였어요, '좋은 친구가 되었네.' 토토는 환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집이 환하게 변했어요. 토토는 집안일을 통해 따뜻한 손길의 힘을 느꼈어요. 작은 손길들이 만든 따뜻한 집. 집안이 환하게 빛났어요.



끝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토토의 집안일 모험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